

## 국 어

## 1. 밑줄 친 부분의 표준 발음이 옳은 것만을 &lt;보기&gt;에서 모두 고르면?

- 가. 이번 일을 계기[계:기]로 삼자.  
 나. 퇴임하는 직원을 위한 송별연[송:벼련]을 열다.  
 다. 그의 넓죽한[널쭈칸] 얼굴이 그리웠다.  
 라. 낙엽을 밟고[밥:꼬] 지나가다.  
 마. 월드컵 때문에 축구의 열병[열뺑]이 전국을 휩쓸었다.

-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라  
 ③ 가, 다, 라  
 ④ 나, 라, 마  
 ⑤ 다, 라, 마

## 2.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전국 단위 민방위 훈련이 21년만에 실시된다.  
 ② 최근 개성공단은 공장 가동률이 30%가량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③ ○○백화점 명품관도 올해 3월말까지 1년간 20~30대가 구매 고객의 52%를 차지했다.  
 ④ 소방청은 대피 훈련을 20분내에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⑤ 600여개 부스는 수많은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 3. 표준어로만 이루어진 문장을 &lt;보기&gt;에서 모두 고르면?

- 가. 그는 총부리 앞에서 두 손을 번쩍 추켜올렸다.  
 나. 구하기 힘든 약이라 윗돈을 주고 특별히 주문해서 사 왔다.  
 다. 늘 그랬었지만 오늘따라 더욱 따라나서기가 껄름직하다.  
 라. 거짓말을 한 피노키오의 코가 기다래졌다.

- ① 가, 나  
 ② 가, 라  
 ③ 다, 라  
 ④ 가, 다, 라  
 ⑤ 가, 나, 다, 라

## 4. 다음 글에 따를 때,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일반적으로 중세국어에서는 체언에 처소를 나타내는 부사격조사가 붙을 때 모음의 종류에 따라 그에 맞는 조사가 선택된다. 먼저 체언의 모음이 양성모음 ‘ㄴ, ㄹ, ㄷ’ 중의 하나이면 ‘애’가 쓰였다.

- 世尊이 象頭山애(상두산+애) 가샤 (세존이 상두산에 가시어)

체언의 모음이 음성모음 ‘ㅁ, ㅂ, ㅅ’ 중의 하나이면 ‘에’가 쓰였다.

- 기쁜 굴형에(굴형+에) 빠디여 (깊은 구렁에 빠져)

그리고 체언의 모음이 중성모음 ‘ㅣ’나 반모음 ‘ㅇ’일 때는 ‘예’가 쓰였다.

- 齒頭入소리에(소리+예) 쓰고 (치두의 소리에 쓰고)
- 귀예(귀+예) 듣논가 너기스북쇼셔 (귀로 듣는 것처럼 여기 시읍소서)

- ㉠ ( 불 + □ ) 물뢰야 (불에 말리어)  
 ㉡ ( 옷깃머리 + □ ) 다쁘니라 (윗니의 머리에 닿느니라)  
 ㉢ ( 먹숨 + □ ) 사기며 (마음에 새기며)

- |   | ㉠  | ㉡     | ㉢   |
|---|----|-------|-----|
| ① | 브래 | 옷깃머리에 | 먹숨매 |
| ② | 브레 | 옷깃머리에 | 먹숨매 |
| ③ | 브래 | 옷깃머리에 | 먹숨매 |
| ④ | 브레 | 옷깃머리에 | 먹숨매 |
| ⑤ | 브레 | 옷깃머리에 | 먹숨매 |

## 5. 다음 글에 따라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이 어미와 결합하여 활용을 할 때, 어간과 어미가 일정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환경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다. 전자를 규칙 활용, 후자를 불규칙 활용이라 부른다.

어간이나 어미가 항상 일정한 모습으로 유지된다면 당연히 규칙 활용이지만, 어간이나 어미의 모습이 달라진다 해도 그 현상을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규칙 활용이다. ‘쓰고~써, 따르고~따라’는 ‘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으’가 탈락하는 것이다. 비록 용언 어간이 활용을 할 때 바뀌기는 하지만 ‘으’로 끝나는 용언들은 모두 동일한 환경에서 예외 없이 자동적으로 바뀌므로 규칙 활용으로 볼 수 있는 예들이다.

불규칙 활용은 어간의 변화가 불규칙한 것, 어미의 변화가 불규칙한 것, 어간과 어미가 모두 불규칙하게 변하는 것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어간의 변화가 불규칙한 것을 살펴보기로 하자. ‘짓-’의 활용을 보면, ‘짓다, 짓지’처럼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짓-’이 유지되지만, ‘지어, 지으니’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시’가 탈락하여 ‘지-’로 나타난다. 이것은 모든 어미 앞에서 ‘시’가 유지되는 규칙 활용을 하는 ‘웃-’과는 다른 모습이다.

다음으로 어미의 변화가 불규칙한 것을 살펴보기로 하자. ‘하다’의 활용을 보면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면 어미가 변하지 않으나,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면 불규칙적으로 변한다. 즉 ‘하-’는 어간의 끝소리가 ‘아’이므로 규칙 활용을 한다면 ‘가-’처럼 ‘가, 가라, 갔다’ 등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실제로는 ‘하여, 하여라, 하였다’처럼 나타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간과 어미가 모두 불규칙하게 변하는 예를 들기로 하자. ‘파랳-’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국어의 일반적인 규칙인 ‘ㅎ’축약이 일어나지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파란, 파라면’처럼 ‘ㅎ’이 탈락하는 어간의 불규칙 현상과 ‘파래서, 파랬다’처럼 어미 ‘-아서’, ‘-았-’이 ‘-에서’, ‘-었-’으로 변하는 어미의 불규칙 현상을 동시에 보여 준다.

- ① ‘짓다’는 어간 ‘짓-’이 모든 어미 앞에서 유지되는 규칙 활용을 보인다.
- ② ‘구르다’는 모음 어미 ‘-어’ 앞에서 ‘ㄹ’이 탈락하고 ‘르’가 새롭게 들어가는 불규칙 활용을 보인다.
- ③ ‘듣다’는 모음 어미 앞에서 ‘ㄷ’이 ‘르’로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보인다.
- ④ ‘좋다’는 특정한 조건에서 ‘ㅎ’이 축약되거나 탈락하는 불규칙 활용을 보인다.
- ⑤ ‘날다’는 특정한 조건에서 ‘르’가 탈락하지만 ‘르’로 끝나는 용언들이 모두 같은 환경에서 예외 없이 바뀌므로 규칙 활용을 보인다.

## 6.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국에서 자취하던 시절,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요리책을 사 읽은 적이 있다. “㉠한소끔 끓어오르면 어슷썬 대파를 적당량 집어넣으라.”는 서술에 어이없어 했던 시절이다. 그때 나는 ‘설소식간’의 순서로 넣어야 한다는 사실보다 왜 설탕, 소금, 식초, 간장의 그 순서로 넣어야 하느냐가 궁금했다. 분명 요리는 ㉡화학적 변화이거늘, 그 원리가 무엇이라는 것이다. 당시에는 답을 찾지 못했는데, 얼마 전 읽은 책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다. 방대한 답.

모든 동물은 입을 달고 있다. 생존의 전제가 먹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도 그러한 동물이고, 먹어야 할 대상이 다양하니 ‘음식과 요리’라는 두 단어가 지칭하는 대상도 방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문만 해도 무려 1,200쪽이 넘는다. 두께로 보면 ㉢통독(統讀)을 위한 책이라기보다는 곁에 두고 필요할 때 찾아보는 참고서에 가깝다. 그러나 요리 과정에서 그 재료가 도대체 어떤 화학적 작용을 거쳐 음식에 이르는지를 설명한 이 ‘과학책’은 한번 붙들면 통독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만든다. 펼쳐들려면 작심을 해야 한다.

화학, 역사, 언어를 종횡무진 넘나들고 번역하고 ㉣감수하는 데 세 사람이나 필요했던 이 책의 저자가 단 한 명인 것이 신기하다. 어정쩡한 귀동냥을 근거로 우물쭈물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길이와 명쾌에 감탄하게 된다. 여느 책과 비교하면 대단히 비싼 책이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정보와 가치를 지닌 책에 그 값은 정말 ㉤혈가(歇價)에 지나지 않는다. 고기 일 인분, 소주 한 병 값으로 이 정도의 좋은 정보를 알려준 저자와 출판사에게 고맙다고 할 일이다.

- ① ㉠ : ‘한소끔’은 표기가 잘못되었으니 ‘한소금’으로 수정해야 한다.
- ② ㉡ : ‘화학적 변화’에서 ‘화학적’의 품사는 명사이다.
- ③ ㉢ : ‘통독’은 한자 표기가 잘못되어서 ‘統’을 ‘通’으로 수정해야 한다.
- ④ ㉣ : ‘감수하는 데’의 ‘-는데’는 어미이므로 ‘감수하는데’와 같이 붙여 써야 한다.
- ⑤ ㉤ : ‘혈가(歇價)’라는 단어는 없기 때문에 ‘혈값’으로 고쳐 써야 한다.

## 7. 밑줄 친 한자어의 한글 표기로 옳지 않은 것은?

㉠滔滔히 밀려오는 亡國의 濁流이 金力과 權力, 邪惡 앞에 목숨으로써 防波堤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志操의 ㉡喊聲을 높이 외치라. 그 知性 앞에는 사나운 물결도 물러서지 않고는 못 배길 것이다. 天下의 ㉢太勢가 바른 것을 향하여 다가오는 때에 變節이란 무슨 어처구니없는 말인가. 李完用은 나라를 팔아먹어도 자기를 위한 36년의 ㉣先見之明은 가졌었다. 무너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權力에 뒤늦게 팔리는 行色은 딱하기 짝 없다. 배고프고 욕된 것을 조금 더 참으라. 그보다 더한 욕이 ㉤變節 뒤에 기다리고 있다.

- ① ㉠ 담담
- ② ㉡ 함성
- ③ ㉢ 대세
- ④ ㉣ 선견지명
- ⑤ ㉤ 변절

[8~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이 등에 시름 업스니 漁父의 生涯이로다.  
一葉片舟를 萬頃波에 띄워 두고  
人世를 다 니젯거니 날 가는 줄을 안가.
- (나) 구버는 千尋綠水 도라보니 萬疊青山  
十丈紅塵이 언제나 ㄱ렛논고  
江湖에 月白하거든 더욱 無心하애라.
- (다) 靑荷에 바불 띄고 綠流에 고기 빼여,  
蘆荻花叢에 비 미아두고,  
一般淸意味를 어니 부니 아루실고.
- (라) 山頭에 閒雲이 起하고 水中에 白鷗이 飛이라.  
無心코 多情하니 이 두 거시로다.  
一生에 시르믈 닛고 너를 조차 노로리라.
- (마) 長安을 도라보니 北關이 千里로다.  
魚舟에 누어신들 니즌 스치 이시랴.  
두어라 내 시름 안니라 濟世賢이 업스랴.

8. 밑줄 친 시어 가운데 이미지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 ① 千尋綠水  
② 十丈紅塵  
③ 蘆荻花叢  
④ 閒雲  
⑤ 白鷗

9. 유교적 이념을 현실 속에서 실현하려는 속마음이 드러난 것은?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10. (가)~(마)의 글을 논리적 순서에 맞게 나열한 것은?

- (가) 흔히 방언에 따라 발음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가리키는 것에 불과하다.
- (나) 그런데 언어 변화는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하고, 동일한 지역이라도 성별이나 연령, 계층 등의 사회적 변수에 따라 달리 진행되기도 한다.
- (다) 만약 언어 변화가 모든 지역의 모든 언중에게서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발음의 변이란 생길 수가 없다.
- (라) 발음의 변이가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언어 변화가 일률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데 있다.
- (마) 이처럼 언어 변화가 여러 조건들에 따라 상이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 발음의 변이도 발생하게 된다.

- ① (가)-(나)-(라)-(마)-(다)  
② (다)-(나)-(마)-(라)-(가)  
③ (다)-(라)-(나)-(가)-(마)  
④ (라)-(가)-(다)-(나)-(마)  
⑤ (라)-(다)-(나)-(마)-(가)

11. 다음 글에 따라 추론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타입의 사람에게 “소설이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고 물어 보면, 그는 조용히 대답할 것이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질문 치고는 묘한 질문이군요.” 이 사람은 온순하고 애매한데, 아마 버스 운전이라도 하면서 문학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의 관심이 없는 경우이다. 또 한 사람은 골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지만, 무척 괄괄하고 똑똑할 것이다. 그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소설이 무엇을 하느냐? 그야 물론 이야기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내게는 필요가 없는 물건이야. 난 이야기를 좋아하니까 나로서는 확실히 나쁜 취미이지만, 이야기는 종단 말이야. 예술도 가져가고 문학도 가져가고 음악도 가져가도 좋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는 나를 달라구. 그러구 말이지 이야기는 이야기다운 게 좋더군. 마누라도 역시 그렇대.”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약간 침울하고 불만스러운 듯한 어조로 말한다. “그렇지요. 글쎄 그렇겠지요. 소설은 이야기를 합니다.”

- ① 세 명의 답변은 소설에 대한 공통적 인식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제각기 다르다.
- ② 첫 번째 사람의 답변은 단정이 보류된 상태에서 의문이 숨겨져 있다.
- ③ 두 번째 사람의 답변은 뻔뻔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단정적이며 자신에 차 있다.
- ④ 세 번째 사람의 답변은 의문을 지닌 상태에서 단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 ⑤ 소설의 정의는 한마디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12. (가)~(마)의 글을 논리적 순서에 맞게 나열한 것은?

(가)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사실상 사과는 거의 불가능하다. 잘못된 이가 자신이 누구에게 어떤 고통을 줬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경우에 가해자는 이미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면서도 고통을 줬다. 그것이 뻔히 고통인 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고통을 준 것이다. 그렇기에 그의 사과는 들켰기 때문에 하는 사과다. 들키지 않았더라면 결코 사과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 사과는 자신이 가한 행위의 '의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행위다. 자신의 의도가 선한 것이었건, 악한 것이었건 그것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고통을 가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사과다. 따라서 사과에 선행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가 왜 상대방에게 '본의와 달리' 고통을 줄 수밖에 없었는지를 깨닫는 것이다. 그래야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사과가 그저 한 번의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앞날에 대한 맹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 게다가 어느 경우라도 고통에 대한 이해가 없다. 아무리 '진정한' 사과라고 하더라도 사과한다고 고통이 그 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고통이 순간이 아니기에 사과도 순간이 될 수 없다. 사과는 일회용 휴지처럼 한번 사용하고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과는 시간을 들여 반복·지속돼야 하는 행위다. 우리는 잊고 묻으려고만 하는 '사과'에 저항해야 한다.

(라) 반대로 가해자가 그가 고통을 가한 것에 대해 모르는 경우에도 사과는 불가능해진다. 무엇을 사과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과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본의가 아니었다."라고 말한다. 악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 말은 대부분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한 번도 피해자의 입장이 되어 본 적이 없기에 그것이 고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본의'가 아니지만 어쨌든 피해자가 고통을 느꼈다고 하니 사과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 경우도 제대로 된 사과가 될 수 없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과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마) 제대로 된 사과를 보기가 힘들다. 전쟁, 국가폭력과 같은 범죄에 대한 국가와 국정 최고책임자의 사과에서부터 뇌물수수자와 같은 정치인들의 사과, '갑질'한 기업인, 혐오 발언한 연예인에 이르기까지 다 그렇다. 이들은 자신이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사과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듯하다. 뻔히 고통을 당한 당사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제쳐놓고 '국민'이나 '시청자'에게 사과한다. 아니 '사과' 대신 '유감'이라고 말해서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헷갈리게 되는 경우도 있다.

- ① (나)-(가)-(라)-(다)-(마)
- ② (나)-(마)-(가)-(다)-(라)
- ③ (나)-(마)-(가)-(라)-(다)
- ④ (마)-(나)-(가)-(라)-(다)
- ⑤ (마)-(나)-(라)-(가)-(다)

## 13. 다음 글의 설명에 해당하는 사례로 옳은 것은?

어떤 음운 변화가 생겨서 'A'라는 음소가 'B'로 바뀌면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B'를 'A'로 다시 되돌리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런데 때로는 되돌리면 안 되는 음까지 되돌려서 새로운 변화가 야기되기도 하는데 이것을 과도 교정이라고 한다. 가령 'A'라는 자음이 'C' 앞에서 'B'로 바뀌는 변화가 있다고 할 때 'A'에서 바뀐 'B'를 'A'로 되돌리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원래부터 'B'였거나 또는 'A'가 아닌 다른 자음에서 바뀐 'B'까지 'A'로 되돌리는 변화가 과도 교정인 것이다.

- ① 티대[打]>치다
- ② 기름>지름
- ③ 담치[沈菜]>짐치
- ④ 힘>심
- ⑤ 질삼>길쌈

## 14. 파생어로만 묶인 것은?

- ① 강추위, 날강도, 온갖, 짓누르다
- ② 공부하다, 기대치, 되풀다, 들이닥치다
- ③ 게을러빠지다, 끝내, 참꽃, 한겨울
- ④ 들개, 어느덧, 움직이다, 한낮
- ⑤ 들쭉시다, 마음껏, 불호령, 여남은

## 15. 밑줄 친 부사 중 기능상 분류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 ① 그 실력으로 과연 취직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 ② 그 약이 정말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
- ③ 오자마자 바로 떠난다니?
- ④ 응당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 ⑤ 제발 비가 왔으면 좋겠다.

## 16. 밑줄 친 단어 중 다음 글에 설명된 특성을 모두 보이는 것은?

- 서로 다른 단어지만 발음이 동일하다.
- 품사나 활용 등 문법적 기능이 동일하다.
- 정서법상 철자 표기가 동일하다.

- ① 빨래를 걸자 아내가 다가왔다. ~ 조금만 더 빨리 걸자.
- ② 그 일은 손이 많이 간다. ~ 장사꾼의 손에 놀아나다.
- ③ 운동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다. ~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였다.
- ④ 그는 누구에게나 반말을 썼다. ~ 시험 공부에 시간을 많이 썼다.
- ⑤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다. ~ 좋은 반듯이 그어라.

## 17. 외래어 표기가 옳은 것만을 &lt;보기&gt;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 ㄱ. 기타큐슈(Kitakyûshû)  
 ㄴ. 소셔드라마(sociodrama)  
 ㄷ. 도스토예프스키(Dostoevsky)  
 ㄹ. 하바나(Havana)  
 ㅁ. 키리바시(Kiribati)

- ① ㄱ, ㄴ, ㅁ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 18. 한자어의 독음이 모두 옳은 것은?

- ① 更新(경신), 復權(복권), 有名稅(유명세), 劃策(획책), 周旋(주유)  
 ② 該當(해당), 比率(비율), 收斂(수렴), 墮落(추락), 開拓(개척)  
 ③ 樣相(양상), 建築(건축), 未達(미비), 部族(부족), 傳達(전달)  
 ④ 收益(수익), 交流(교류), 鬱寂(울적), 於此彼(어차피), 代替(대체)  
 ⑤ 賂物(뇌물), 思惟(사변), 役割(역할), 準備(준비), 摘出(적출)

## 19. ‘먹다’가 들어간 속담의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꿩 구워 먹은 자리  
 : 어떠한 일의 흔적이 전혀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 소금 먹은 놈이 물켄다  
 : 무슨 일이든 반드시 그렇게 된 까닭이 있다는 말  
 ③ 먹던 술도 떨어진다  
 : 매사에 조심하여 잘못이 없도록 하라는 말  
 ④ 먹는 데는 관발이요 일에는 송곳이라  
 : 제 이익이 되는 일 특히 먹는 일에는 남보다 먼저 덤비나, 일할 때는 꿈무늬만 뻗는다는 말  
 ⑤ 노루 때린 막대기 세 번이나 국 끓여 먹는다  
 : 어떤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

## 20.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상(地上)에는  
 아홉 켤레의 신발.  
 아니 현관에는 아니 들간에는  
 아니 어느 ㉠시인의 가정에는  
 알 전등이 켜질 무렵을  
 문수(文數)가 다른 아홉 켤레의 신발을.  
 내 ㉡신발은  
 십구문반(十九文半).  
 눈과 얼음의 길을 걸어,  
 그들 옆에 벗어나  
 육문삼(六文三)의 코가 납작한  
 귀염둥아 귀염둥아  
 우리 막내둥아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얼음과 눈으로 벽(壁)을 짜올린  
 여기는  
 지상.  
 ㉢연민한 삶의 길이어.  
 내 신발은 십구문반(十九文半).

아랫목에 모인  
 아홉 마리의 강아지야  
 ㉣강아지 같은 것들아.  
 굴욕과 굴주림과 추운 길을 걸어  
 ㉠내가 왔다.  
 아버지가 왔다.  
 아니 십구문반(十九文半)의 신발이 왔다.  
 아니 지상에는  
 아버지라는 어설픈 것이  
 존재한다.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 ① ㉠ : 시적 화자가 냉정한 현실 속에서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을 의미한다.  
 ② ㉡ : 가장 밑바닥에서 고단한 삶을 함께 하는 동반자로서의 의미가 있다.  
 ③ ㉢ :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없는 나약한 아버지의 슬픔이 짙게 배어 있다.  
 ④ ㉣ : 보살피 주어야 할 사랑스럽고 귀여운 자식들을 나타낸다.  
 ⑤ ㉠ : 반복을 통해 아버지의 가족에 대한 짙은 애정과 책임감이 부각되고 있다.

## 21.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촌장: 이것, 네가 보낸 거냐?

다: 네, 촌장님.

촌장: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이 ㉠편지를 가져온 운반인이 도중에서 읽어 본 모양이더라. ‘이리 떼는 없고, ㉡흰 구름뿐.’ 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단다. 조금 후엔 모두들 이곳으로 몰려올 거야. 물론 네 탓은 아니다. 몰려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불청객이지. 더구나 그들은 화가 나서 도끼라든가 망치를 들고 올 거다.

다: 도끼와 망치는 왜 들고 와요?

촌장: 망루를 부수려고 그러겠지.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구 ㉢딸기라도 따러 가고 싶다. 난 어디에 딸기가 많은지 알고 있거든. 이리 떼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엔 오래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단다.

다: 촌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촌장: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냐?

다: 촌장님도 아시는군요?

촌장: 난 알고 있지.

다: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저 ㉤뗏을 보러 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는 거예요?

- 중 략 -

촌장: 애야, 이리 떼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 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 떼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그들은 질서를 만든 거야. 질서, 그게 뭔지 넌 알거나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 주는 거란다.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게겐 미안해. 수천 개의 쓸모없는 뗏들을 보살피고 양철 북을 요란하게 두들겼다. 허나 말이다,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된다고만 할 순 없어.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난 네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만약 네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가 된다. 저 파수꾼은 늑도록 헛북이나 친 것이 되구,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 버린다. 애야, 넌 이렇게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진 않겠지?

- ① ㉠ : 촌장이 황야로 오게 된 계기
- ② ㉡ : 진실, 이리 떼의 실체
- ③ ㉢ : 진실을 왜곡하여 얻은 부정한 대가
- ④ ㉣ :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단서
- ⑤ ㉤ :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 만들어 낸 장치

## 22. 밑줄 친 문장의 ㉠, ㉡에 들어갈 표현으로 옳은 것은?

삶과 죽음이 이웃처럼 붙어 있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 주는 조각 작품이 있다. 전시 공간에 텅굴 듯이 던져져 있는 두 개의 머리는 꼭 달라붙어 있었다. 아래쪽 두상과 위쪽 두개골상이 작품의 제목처럼 각각 삶과 죽음을 상징하고 있음을 포착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마치 시인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에서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라는 시구를 조각으로 빚어 놓은 것 같다.

이 작품을 잘 들여다보면 해골이 잠든 듯 살포시 눈을 감은 아래쪽 두상의 볼을 물어뜯고 있는데, 언뜻 보면 죽음이 삶을 잠식하는 듯하다. 그런데 작가는 해골을 붉은색 계열의 빛깔로 표현하였다. 흔히 떠올리는 백골의 이미지와는 동떨어져 있다.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이 피가 도는 것처럼 살아 있고, 오히려 삶을 상징하는 아래쪽 두상은 죽은 것처럼 피부색이 납빛이다. 살아 있는 해골과 죽어 있는 삶이라니! 이렇게 되면 삶과 죽음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작가는 죽음 안에 삶이 들어 있고 삶 안에 죽음이 숨 쉬고 있음을 ㉠과(와) ㉡의 기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 |   |    |    |
|---|----|----|
|   | ㉠  | ㉡  |
| ① | 비교 | 모순 |
| ② | 대조 | 역설 |
| ③ | 대립 | 묘사 |
| ④ | 분석 | 대조 |
| ⑤ | 묘사 | 대칭 |

## 23. 다음 글에 따라 추론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어의 형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단어들의 형태 변화는 많은 경우 음운의 변화에 의해 나타나게 된다. 중세국어에는 현대국어와 달리 체언 말음에 ‘ㅎ’을 가진 단어들이 제법 많이 존재하였다. ‘하늘, 나라’는 중세국어에서 ‘하늬, 나라’였다. 이 단어들은 ‘하늬’처럼 단독형으로 쓰일 때나 관형격 조사 ‘ㅅ’ 앞에서는 ‘ㅎ’이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과, 하늘토’와 같이 ‘ㄱ,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에는 ‘ㅎ’ 말음이 뒤에 오는 조사와 결합하여 ‘ㅋ, ㅌ’으로 축약되었다. 또한 ‘하늘히’와 같이 모음이나 매개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연음이 되어 나타났다. 현대국어에서는 대체로 ‘ㅎ’이 탈락하였으나 ‘안팎, 암개, 머리카락’ 등의 복합어에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짜ㅎ땅’처럼 받침 ‘ㅇ’으로 나타나거나 ‘췌, 뉘>셋, 넷’처럼 ‘ㅅ’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중세국어에는 현대국어와 달리 뒤에 결합하는 조사에 따라 체언이 달리 나타나기도 하였다. 현대국어의 ‘나무’에 해당하는 중세국어 어형인 ‘나모’는 ‘나모, 나모도, 나모와’와 같이 단독형으로 쓰일 때나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와’와 결합할 때는 ‘나모’로 나타난다. 그런데 ‘남기, 남곤, 남굴’에서 보듯이 ‘와’를 제외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는 ‘남’으로 나타났음을 보여 준다. 물론 이 때도 체언과 조사 사이에는 모음조화가 적용되었다. 현대국어에서는 ‘나무, 나무와, 나무도, 나무가, 나무는’과 같이 하나의 형태로 고정되게 되었다. ‘구멍’에 해당하는 중세국어의 ‘구무’도 ‘나무’와 동일한 양상을 보여 준다.

- ① 현대국어의 ‘하늘과 땅도’는 중세국어에서는 ‘하늬과 짜토’로 나타났다.
- ② ‘수개, 수탉’의 단어들을 보면 ‘수’도 중세국어에서는 ‘췌’이었을 가능성이 있겠다.
- ③ 중세국어에서는 ‘셋히, 셋호로’로 쓰이던 것이 현대국어에서 ‘셋이, 셋으로’가 되었겠다.
- ④ ‘나무’는 중세국어에서 ‘와’를 제외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하던 형태가 현대국어로 오면서 사라진 것이군.
- ⑤ 중세국어의 ‘구무’도 다른 조사와 결합할 때 ‘구무도, 구무와, 굶기, 굶곤’과 같이 쓰였겠다.

## 24. 다음 글의 내용 파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음식은 매우 강력한 변칙범주이다. 왜냐하면 음식은 자연과 문화, 나와 타인,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라는 매우 중요한 영역의 경계를 지속적으로 넘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행사들은 늘 식사 대접을 통해 표현되었고, 날로 먹는 문화에서 익혀 먹는 문화로 변형되는 과정 역시 가장 중요한 문화적 과정 중의 하나였다. 이 과정은 음식에 어떠한 인위적인 조리를 가하기 이전에 이미 음식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비록 문화마다 음식에 대한 범주가 다르긴 하지만 모든 문화는 자연 전체를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으로 구분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위장은 거의 모든 것을 소화시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식용과 비식용을 구별하는 것은 생리적 근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문화적인 토대에 입각한 것이다. 한 사회가 다른 사회를 낯설고 이질적인 사회라고 증명하는 근거로서 자기 사회에서 먹지 못하는 대상을 그 사회에서는 먹고 있다는 식으로 구분하는 무수한 사례를 통해 이 같은 구분이 지닌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영국인들에게 프랑스인들은 개구리를 먹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고,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해지스(haggis: 양의 내장을 다져서 오트밀 따위와 함께 양의 위에 넣어서 삶은 것)를 먹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아랍인들은 양의 눈을 먹기 때문에 영국인들에게 낯선 인종이며 원주민들은 애벌레를 먹기 때문에 이방인 취급을 받는 것이다.

- ① 음식의 개념과 범위는 문화에 따라 다르게 정해질 수 있다.
- ② 위장의 소화 능력에 따라 식용과 비식용이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 ③ 음식과 음식 아닌 것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문화적인 성격을 갖는다.
- ④ 사람들은 다른 문화의 낯선 음식에 대해서는 야만적이라고 생각한다.
- ⑤ 문화마다 음식 개념이 다르니만큼, 음식 문화는 상대적인 성격을 갖는다.

## 25. 다음 글의 핵심 비판 내용으로 옳은 것은?

우리의 밥상에는 밥과 함께 국이 주인이다. 봄이면 냉이국이나 쑥국의 향긋한 냄새가 좋고, 여름엔 애호박국이 감미로우며, 가을엔 뚝국이 시원하다. 그리고 겨울이면 시래깃국과 얼큰한 배추 김치국이 있어서 철따라 우리의 입맛을 돋운다.

가을 뚝국은 반드시 간장을 넣고 끓여야 제 맛이 나고, 겨울 시래깃국은 된장을 풀어야 구수한 맛이 돈다. 사람들이 지닌 성품과 애정(愛情)도 이처럼 사계절의 국물맛과 같지 않을까?

조선 시대 왕들은 해마다 봄이 되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제사를 지냈다. 그 해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왕이 친히 선농단까지 나갔던 것이다. 왕이 직접 제사를 지내니 백성들도 구름같이 몰려들었다. 궁궐에서만 사는 왕을 먼발치에서라도 볼 수 있고, 또 한 해 농사가 풍년이 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기도 해서였다. 흉년이 든 다음 해는 백성들이 더 많았는데, 그 까닭은 그 곳에 가면 국물을 얻어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면 선농단의 국물에는 은혜와 감사, 또는 마음 속 깊은 기원(祈願)이나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선농단에서 백성들에게 국물을 나누어 주다가 갑자기 사람이 더 늘어나면 물을 더 붓는다. 그리고 간을 다시 맞추어 나누어 먹는다. 물을 더 부으면 그만큼 영양가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 지난날 우리가 영양가를 따져 가며 먹고 살아왔던가? 가난을 나누듯 인정(人情)을 사이 좋게 실어 나르던 고마운 국물이었던 것이다.

옛장수 인심에 ‘맛보기’라는 것도 예외가 아니다. 기분만 나면 맛보기 한 번에다 덤을 주는데, 이 역시 국물 한 대접 같은 인정의 나눔이다.

시장에서 콩나물을 살 때도 값어치만큼의 양은 당연히 준다. 그러나 덤으로 콩나물이 더 얹히지 않을 때 아낙네들은 금방 섭섭한 눈치를 한다. 파는 이가 두꺼비 같은 손잔등을 짹 펴서 서너 개라도 더 올려놓아야 아낙네들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서 간다. 그 덤 역시 국물과 같은 끈끈한 인정의 나눔이리라.

그런데 요즘 우리네 식탁엔 점차 국물이 사라지고 있다. 걸어가면서 아침을 먹고, 차에 흔들리면서 점심을 먹어야 하는 바쁜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인가? 아니면, 개척 시대 미국 이주민의 생활(生活)이 부러워 그것을 흉내 내고 싶어서인가? 즉석 요리, 인스턴트 식품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다.

내 아이들도 예외는 아니다. 생선은 굵고, 닭고기는 튀겨야 맛이 있다고 성화인 것만 보아도 그렇다. 나는 그 반대 입장에서서서 국물이 있는 것으로 입맛을 채기려 하니, 아내는 늘 지혜롭게 식탁을 꾸려갈 수밖에 없다. 기다릴 줄을 모르고, 자기 욕심 자기 주장이 통할 때까지 고집을 피워 대는 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그런 성격이 서구화(西歐化)된 식탁 문화에서 빚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커진다.

오늘 아침에도 조기 한 마리를 사다 놓고, 이것을 구울까 찌개를 끓일까 망설이는 아내의 처지가 참 안쓰러웠다. 한참을 망설이던 아내는 내 눈치를 보면서 끝내 조기를 굽는다. 국물 없는 아침밥을 먹고 출근하는 발걸음이 어째 가볍지가 않다.

- ① 나눔과 인정이 사라진 현대 사회
- ② 전통문화를 부러워하는 현대인들
- ③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세대
- ④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인의 생활
- ⑤ 인스턴트 식품의 범람

## 헌 법

## 1.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은 민의원선거권자 50만 명 이상의 찬성으로도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 ②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국회의원 정수의 하한뿐 아니라 상한도 설정하였다.
- ③ 1969년 제6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요건을 제5차 개정헌법과 다르게 규정하였다.
- ④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은 개헌안의 공고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였다.
- ⑤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필수적으로 정당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 2.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자산이 공용수용으로 양도된 경우에도 중과세하는 구 「소득세법」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②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구 「지방세법」 조항은, 인구유입이나 경제력집중의 유발 효과가 없는 신축 또는 증축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의 경우에도 모두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므로 재산권을 침해한다.
- ③ 계약의 이행으로 받은 금전을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반환하는 경우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민법」 조항은, 계약 해제의 경위·계약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 제반 사정을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고려하게 되므로, 원상회복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④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서 도축장 사용정지·제한 명령은 공익목적을 위하여 이미 형성된 구체적 재산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축장 소유자들이 수인하여야 할 사회적 제약으로서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해당한다.
- 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재산’의 범위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위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 증여를 받은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친일재산귀속법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3.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회의장이 적법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음에도 반대토론을 허가하지 않고 토론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채 법률안들에 대한 표결절차를 진행한 것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 ②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위원장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 대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요청에 대해 기재위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표결실시를 거부한 행위는 기재위 소속 위원의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에 대한 표결권을 침해한다.
- ③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을 가결·선포할 수 있을 뿐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국회부의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④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는 것이므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비준하였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 ⑤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제3자 소송당당’을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권한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4.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란 사인인 제3자에 의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침해로부터 이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가 직접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사용을 금지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 ②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로부터 국가 자체가 불법적으로 국민의 생명권,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할 국가의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있다.
- ③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④ 원전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권한을 다른 전원개발과 마찬가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부여하는 법률조항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 ⑤ 권리능력의 존재 여부를 출생 시를 기준으로 확정하고 태아에 대해서는 살아서 출생할 것을 조건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법률조항은 국가의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또는 강제퇴거의 절차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② 교정시설 내 수용자와 변호사 사이의 접견교통권의 보장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판청구권의 한 내용 또는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로 볼 수 있다.
- ③ 법원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 ④ ‘변호인으로 선임된 자’뿐 아니라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다.
- ⑤ 구속피고인의 변호인 면접·교섭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와 피고인의 인권보호라는 형사소송절차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제한은 엄격한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시간·장소·방법 등 일반적 기준에 따라 중립적이어야 한다.

6.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② 헌법소원심판은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속력이 발생하지만,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기각결정도 기속력이 인정된다.
- ③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을 각하하거나 심판회부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 및 피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서는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⑤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헌법 제107조 제2항이 규정한 명령·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사권이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명령·규칙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 법률의 경우와는 달리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것 없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명령·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위 헌법규정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이다.

7. 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방부 등의 보조기관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현역군인에게만 부여하고 군무원에게는 부여하지 않는 법률조항은 군무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② 선출직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은 선거를 전제로 하는 대의제의 원리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직의 취임이나 상실에 관련된 어떠한 법률조항이 대의제의 본질에 반한다면 이는 공무담임권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국립대학교 총장후보자로 지원하려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의 기탁금 납부를 요구하고, 납입하지 않을 경우 총장후보자에 지원하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 ④ 공무담임권은 공직취임의 기회균등만을 요구할 뿐, 취임한 뒤 승진할 때에도 균등한 기회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⑤ 고용노동 및 직업상담 직류를 채용하는 경우 직업상담사 자격증 보유자에게 만점의 3% 또는 5%의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명시한 인사혁신처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는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려고 하는 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8. 현행 헌법에 따를 때, 다음 계산식에서 도출되는 값으로 옳은 것은?

$$A - B + C - D + E - F = ?$$

<보 기>

- 정기회의 회기는 ( A )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 B )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 C )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 D )일 내지 ( E )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 F )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① 38

② 33

③ 28

④ 23

⑤ 18

## 9. 「국회법」상 국회의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상임위원회는 4월·6월의 세 번째 월요일부터 한 주간 정례적으로 개회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④ 국회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 ⑤ 위원회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 10.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폐지된 법률이라도 그 법률에 의하여 법익침해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 ② 심판대상조항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의 효력과 내용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 ③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당사자는 당해 법원이 제청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 ④ 제1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당한 소송당사자가 상소심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제청신청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
- ⑤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것이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에 의한 것이든,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 11.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lt;보기&gt;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lt;보 기&gt;

- ㄱ. 검사가 구속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
- ㄴ. 법무부에 설치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의결
- ㄷ. 검사가 변호인에 대하여 한 피의자접견불허행위
- ㄹ.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의견제시를 한 행위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 12.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lt;보기&gt;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lt;보 기&gt;

- ㄱ.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조직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포괄하는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당의 자유는 국민이 개인적으로 갖는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단체로서의 정당이 가지는 기본권이기도 하다.
- 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및 첨부서류 등의 열람기간을 공고일로부터 3월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정당의 정치자금에 관한 정보의 공개라는 공익적 측면보다는 행정적인 업무부담의 경감을 우선시키는 것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 ㄷ.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더 크므로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
- ㄹ.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구 「정치자금법」 조항은 정당이 스스로 재정을 충당하고자 하는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 13. 적법절차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현행 헌법은 제12조 제1항의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 등과 관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그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적용 대상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해야 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③ 징계시효 연장을 규정하면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계시효가 연장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④ 「범죄인인도법」 제3조가 법원의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그 심사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재판절차로서의 형사소송절차에서 상급심에의 불복절차를 자의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 ⑤ 징벌형의 조사를 위하여 14일간 청구인을 조사실에 분리수용하고 공동행사참가 등 처우를 제한한 교도소장의 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의한 개별적인 통제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 것만으로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14.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저작권법」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② 노동단체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조항은 노동단체의 단결권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③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 중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분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④ 공직자의 공무집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실이라도 일정한 경우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할 수 있고, 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그 내용이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순수한 사생활의 영역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문제제기 내지 비판은 허용되어야 한다.
- 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중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부분은, 정보 수신자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실제로 느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정보를 보낸 사람을 처벌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그 처벌 대상이 무한히 확장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15.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는 옥외집회 신고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옥외집회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 신고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와 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③ 집회 현장에서 집회 참가자에 대한 사진촬영행위는 집회 참가자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집회의 자유를 전체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
- ④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며,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
- 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지 통고를 받았을 경우, 통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6. 사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 ㄱ.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민사, 가사, 행정 등 소송 사건에 있어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두는 것은 그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 ㄴ.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특별검사 후보자 2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추천후보자 중에서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적법절차원칙·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ㄷ. 대법원판례 위반을 대법원의 심리불속행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법규범성이 없는 대법원판례를 재판규범으로 삼아 상고심재판을 배척하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 ㄹ. 법관이 형사재판의 양형에 있어 법률에 기속되는 것은, 법률에 따라 심판한다고 하는 헌법규정에 따른 것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법치국가원리의 당연한 귀결이며, 법관의 양형판단재량권 특히 집행유예 여부에 관한 재량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다고 볼 성질의 것은 아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7.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주체로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들고 있는데, 이것은 주체를 한정한 것이 아니라 예시한 것이다.
- ②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는 처분 또는 부작위를 야기한 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이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이들 기관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 ③ 권한쟁의심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39조는 권한쟁의심판절차에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위임사무의 집행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권한분쟁을 이유로 기관위임사무를 집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 ⑤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하여 인정되고,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18. 「국회법」상 의안의 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의안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에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는 제외한다)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
- ⑤ 같은 의제에 대하여 여러 건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원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하며, 수정안이 전부 부결되었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 19.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의 본질적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및 자치사무의 보장이다.
- ②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력을 수직적으로 분배하는 문제는 서로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 조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입법 또는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자치의 본질의 훼손은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③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시·훈령·예규와 같은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의 '법령'에 포함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공유수면에 매립된 토지에 대한 관할권한은 당해 공유수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 ⑤ 주민소환제 자체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주민소환제 및 그에 부수하여 법률상 창설되는 주민소환권이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여 반드시 헌법적인 보장이 요구되는 제도라고 할 수 없다.

## 20. 명확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② 상습으로 절도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형법」 제332조 중 '상습'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③ 옥외집회 및 시위의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범위'에서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질서유지선의 효용을 해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중 '최소한의 범위'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④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중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⑤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호 중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21.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lt;보기&gt;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ㄱ.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연계하여 출제하기로 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은 헌법 제31조 제1항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직접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ㄴ.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직접 도출되는 권리이다.
- ㄷ.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1항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교육의 영역에서 능력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 22. 「국회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를 때, A~E 중 가장 큰 수는?

-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등록은 선거일 전 ( A )일부터 2일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정부에 대한 질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발언 시간은 ( B )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장이 정한다.
- 국회의원지역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 C )개월부터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은 ( D )일이다.
- 의원 ( E )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 ① A
- ② B
- ③ C
- ④ D
- ⑤ E

## 23. 대한민국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적법」에 규정된 신청이나 신고와 관련하여 그 신청이나 신고를 하려는 자가 18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이를 행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만 17세에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함으로써 외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 ④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 ⑤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그 취소권의 행사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국적법」 조항은 귀화허가취소의 기준·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시행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취소권의 행사기간을 전혀 예측할 수 없으므로 포괄위임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

## 2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국정감사 및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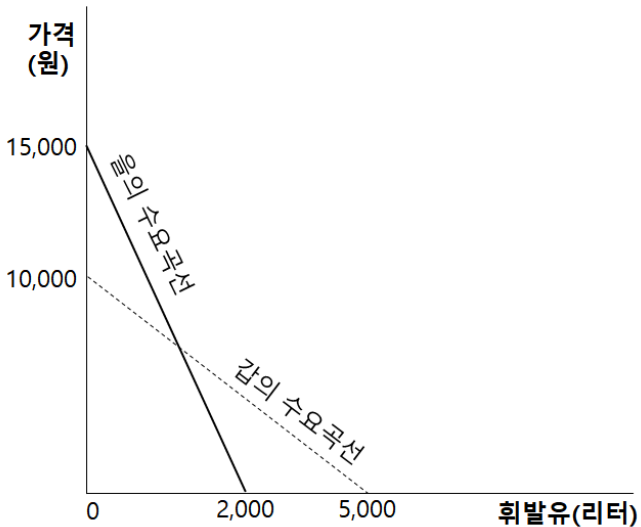
- ①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필요한 경우 2명 이상의 위원으로 별도의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둘 이상의 위원회가 합동으로 반을 구성하여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가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를 제출받은 의장은 이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이때 감사는 상임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따라 한다.

## 25.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을 상신할 때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②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 ③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④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⑤ 국무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경 제 학

1. 다음 그림에 따를 때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3,000원인 경우 휘발유의 시장 수요량으로 옳은 것은? (단, 이 경제에는 갑과 을이라는 두 명의 소비자만 존재한다) (단위: 리터)



- ① 5,100  
 ② 5,200  
 ③ 5,300  
 ④ 5,400  
 ⑤ 5,500
2. 총수요-총공급 분석에서 부정적 수요충격과 일시적인 부정적 공급충격이 발생할 경우 장기적인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물가수준과 총생산은 초기 균형수준으로 돌아간다.  
 ② 물가수준은 영구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총생산은 잠재생산량 수준으로 돌아간다.  
 ③ 총생산은 잠재생산량 수준으로 돌아가나, 물가수준은 초기대비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  
 ④ 물가수준은 영구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총생산은 잠재생산량 수준으로 돌아간다.  
 ⑤ 물가수준은 영구적으로 하락하고, 총생산도 감소한다.

3. 중앙은행이 긴축적 통화정책을 시행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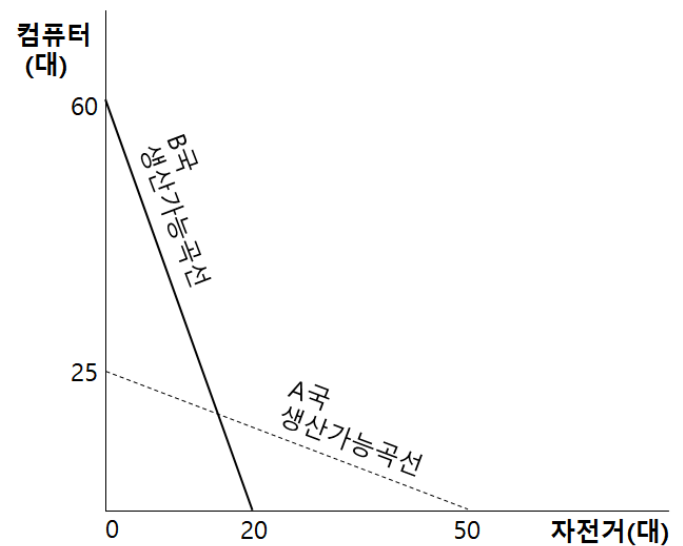
- <보 기>
- ㄱ. 이자율이 상승한다.  
 ㄴ. 외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ㄷ. 국내 통화 가치가 상승한다.  
 ㄹ. 수입가격의 하락으로 무역수지가 개선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시간당 임금이 상승할 때 노동공급이 줄어든다면 다음 중 옳은 것은?

- ①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동일하다.  
 ② 노동공급곡선이 후방굴절하지 않는다.  
 ③ 노동공급곡선이 우상향한다.  
 ④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작다.  
 ⑤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작다.

5. 다음 그림에 따를 때 A국과 B국 사이에서 특화를 통한 무역이 가능하게 되는 컴퓨터 가격의 범위로 옳은 것은?



- ①  $(P_{\text{최저}}, P_{\text{최고}}) = (\text{자전거 } 1/2\text{대}, \text{자전거 } 2\text{대})$   
 ②  $(P_{\text{최저}}, P_{\text{최고}}) = (\text{자전거 } 1/2\text{대}, \text{자전거 } 3\text{대})$   
 ③  $(P_{\text{최저}}, P_{\text{최고}}) = (\text{자전거 } 1/3\text{대}, \text{자전거 } 2\text{대})$   
 ④  $(P_{\text{최저}}, P_{\text{최고}}) = (\text{자전거 } 1/3\text{대}, \text{자전거 } 3\text{대})$   
 ⑤  $(P_{\text{최저}}, P_{\text{최고}}) = (\text{자전거 } 2\text{대}, \text{자전거 } 3\text{대})$

6. A국 경제 성장의 급격한 둔화로 A국으로 유입되었던 자금이 B국으로 이동할 때, B국의 상품수지와 이자율의 변화로 옳은 것은?

- ① 상품수지 악화, 이자율 하락
- ② 상품수지 악화, 이자율 상승
- ③ 상품수지 개선, 이자율 하락
- ④ 상품수지 개선, 이자율 상승
- ⑤ 상품수지 변화 없음, 이자율 하락

7. 다음 표는 수정과와 떡 두 가지 재화만을 소비하는 어떤 소비자의 한계효용을 나타낸 것이다. 이 소비자가 14,000원의 소득으로 효용극대화를 달성하였을 때 소비자잉여의 크기로 옳은 것은? (단, 수정과의 가격은 개당 1,000원이고 떡의 가격은 개당 3,000원이다)

(단위: 개, 원)

수량	한계효용	
	수정과	떡
1	10,000	18,000
2	8,000	12,000
3	6,000	6,000
4	4,000	3,000
5	2,000	1,000
6	1,000	600

- ① 24,000
- ② 32,000
- ③ 38,000
- ④ 46,000
- ⑤ 52,000

8. 케인즈 단순모형에서 총소득은 100, 민간소비는 80, 소비승수는 2라고 가정할 때 총소득이 110으로 변화한다면 민간소비로 옳은 것은? (단, 정부지출, 조세 및 순수출은 각각 0이다)

- ① 80
- ② 85
- ③ 90
- ④ 95
- ⑤ 100

9. X재와 Y재 두 가지 재화만을 소비하는 어떤 소비자의 효용함수는  $U(X, Y) = X + Y$ 이다. 이 소비자의 효용함수와 최적 소비량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X와 Y는 각각 X재와 Y재의 소비량을 의미하며 수평축에 X재의 수량을, 수직축에 Y재의 수량을 표시한다)

- ① 효용함수의 한계대체율( $MRS_{XY}$ )을 정의할 수 없다.
- ② 만약  $\frac{P_X}{P_Y} < MRS_{XY}$ 라면, Y재만을 소비한다.
- ③  $MRS_{XY} = \frac{Y}{X}$ 이다.
- ④ 이 소비자의 효용함수는 선형함수와 비선형함수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⑤ 만약 X재의 가격이 Y재의 가격보다 낮다면, 소득이 증가해도 X재만을 소비한다.

10. 시장형태에 따른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 ㄱ. 완전경쟁시장에서 각 개별 공급자가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서로 다르다.
- ㄴ. 완전경쟁시장에서 새로운 기업이 진입할 경우 생산요소의 비용이 상승하면 장기시장공급곡선은 우상향으로 나타난다.
- ㄷ. 시장수요곡선이 우하향의 직선인 경우 독점기업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구간에서 생산한다.
- ㄹ. 독점적 경쟁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이 탄력적일수록 이윤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독점적 경쟁기업은 비가격 전략을 사용하여 제품을 차별화한다.
- ㅁ. 자연독점의 경우 큰 고정비용으로 평균비용이 높기 때문에 정부가 한계비용가격설정을 하면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ㄴ, ㅁ
- ④ ㄱ, ㄷ, ㅁ
- ⑤ ㄴ, ㄹ, ㅁ

11. 완전경쟁시장에서 A기업의 총비용함수는  $TC(q) = 10,000 + 100q + 10q^2$  이고 현재 시장가격은 제품 단위당 900원일 때, 이 기업의 이윤극대화 수준에서 생산자잉여와 기업의 이윤으로 옳은 것은?

(단위: 원)

	생산자잉여	기업의 이윤
①	16,000	6,000
②	16,000	12,000
③	24,000	6,000
④	24,000	12,000
⑤	32,000	6,000

12. 다음 글에 따를 때 살충제 시장의 생산자가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의 살충제 생산량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살충제 생산량으로 옳은 것은?

- 살충제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다.
- 살충제 생산은 환경오염을 초래한다.
- 환경오염으로 인한 한계외부비용의 크기는 살충제 생산의 한계사적비용의 크기와 동일하다.
- 살충제의 시장공급곡선은  $Q^s = \frac{2}{5}P$ 이고, 시장수요곡선은  $Q^d = 60 - \frac{2}{5}P$ 이다.

- ① 20, 10  
② 20, 15  
③ 30, 10  
④ 30, 15  
⑤ 30, 20

13. 기업의 단기한계비용곡선이 통과하는 점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ㄱ. 단기총비용곡선의 최저점  
ㄴ. 단기평균고정비용곡선의 최저점  
ㄷ. 단기평균가변비용곡선의 최저점  
ㄹ. 단기평균총비용곡선의 최저점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4. A국은 콩과 쌀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밀은 수입한다. GDP 디플레이터의 관점에서 A국의 물가수준 변화로 옳은 것은? (단, A국에는 콩, 쌀, 밀 세 가지 상품만 존재한다)

(단위: kg, 천 원)

상품	기준년도		비교년도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콩	2	10	3	15
쌀	3	20	4	20
밀	4	30	5	20

- ① 비교년도의 물가가 13.6% 상승하였다.  
② 비교년도의 물가가 12.5% 상승하였다.  
③ 비교년도의 물가가 13.6% 하락하였다.  
④ 비교년도의 물가가 12.5% 하락하였다.  
⑤ 물가수준에 변동이 없다.

15. 에지워스 박스(Edgeworth Box)를 사용한 일반균형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이 경제에는 A와 B 두 사람, X와 Y 두 재화만 존재하며 재화의 총량은  $\bar{X}$ 와  $\bar{Y}$ 로 결정되어 있다)

- ㄱ. 재화 X, Y의 가격이 변동할 때 계약곡선은 이동한다.  
ㄴ. 계약곡선은 분배적 형평성을 실현했음을 의미한다.  
ㄷ. 두 사람의 한계대체율이 서로 같게 되는 모든 점은 파레토 효율점을 의미한다.  
ㄹ. 만약  $X_A + X_B < \bar{X}_A + \bar{X}_B$  라면, X재의 가격이 상승하여야 일반균형이 달성된다.  
(단,  $X_A$ ,  $X_B$ 는 각각 A와 B의 X재화 수요량을,  $\bar{X}_A$ ,  $\bar{X}_B$ 는 각각 A와 B의 X재화 초기 소유량을 의미한다)

- ①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16. 다음 글에 따를 때 이 경제의 민간저축(private saving)으로 옳은 것은?

- 이 경제는 폐쇄경제이다.
- $Y = C + I + G + NX$ 가 성립한다.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NX는 순수출을 의미한다)
- 국민저축(national saving)은 500, 조세는 200, 정부지출은 300이다.

- ① 200  
② 400  
③ 600  
④ 800  
⑤ 1,000

17. A국은 글로벌 과잉유동성에 따른 대규모 투기 자본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A국의 주식 및 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금에 2%의 금융거래세를 부과하고자 한다. A국의 금융거래세 도입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A국 통화의 절하 요인이다.
- ② A국 자본수지의 흑자 요인이다.
- ③ A국 증권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요인이다.
- ④ A국으로의 외환 유입을 줄이는 요인이다.
- ⑤ A국 기업의 외자조달 비용을 높이는 요인이다.

18. 거시경제의 총수요·총공급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단기 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는 임금과 가격이 경직적이기 때문이다.
  - ㄴ. 예상 물가수준이 상승하면 단기 총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 ㄷ. 총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이자율이 하락하고 자산의 실질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 ㄹ. 자국화폐의 가치하락에 따른 순수출의 증가는 총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 ① ㄱ, ㄷ
- ② ㄴ, ㄷ
- ③ ㄱ,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19. 다음 글에 따를 때 A국에서 균제상태의 효율적 노동 1단위당 자본을 변화시켜 황금률수준의 효율적 노동 1단위당 자본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으로 옳은 것은?

- A국의 총생산함수는  $Y = K^\alpha (E \times L)^{1-\alpha}$ 이다.  
(단,  $K$ 는 총자본,  $L$ 은 총노동,  $E$ 는 노동효율성,  $Y$ 는 총생산,  $\alpha$ 는 자본의 비중을 의미한다)
- $\alpha = 0.5$ ,  $s = 0.5$ ,  $\delta = 0.1$ ,  $n = 0.05$ ,  $g = 0.03$   
(단,  $s$ 는 저축률,  $\delta$ 는 감가상각률,  $n$ 은 인구증가율,  $g$ 는 노동효율성 증가율을 의미한다)

- ① 균제상태에서 효율적 노동 1단위당 자본이 황금률수준의 효율적 노동 1단위당 자본보다 많아서 저축률을 증가시켜야 한다.
- ② 균제상태에서 효율적 노동 1단위당 자본이 황금률수준의 효율적 노동 1단위당 자본보다 적어서 저축률을 증가시켜야 한다.
- ③ 균제상태에서 효율적 노동 1단위당 자본이 황금률수준의 효율적 노동 1단위당 자본보다 많아서 저축률을 감소시켜야 한다.
- ④ 균제상태에서 효율적 노동 1단위당 자본이 황금률수준의 효율적 노동 1단위당 자본보다 적어서 저축률을 감소시켜야 한다.
- ⑤ 균제상태에서 효율적 노동 1단위당 자본을 황금률수준의 효율적 노동 1단위당 자본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추가 조건은 없다.

20. 구매력평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구매력평가설은 일물일가의 법칙에 근거한다.
  - ㄴ. 구매력평가설에 따르면 두 나라 화폐의 실질환율은 두 나라 물가수준의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
  - ㄷ. 구매력평가설에 따르면 실질환율은 항상 일정해야 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21. A기업의 생산함수는  $Q = K^{0.5} L^{0.5}$ 이고 단기에 자본투입량은 1로 고정되어 있다. 임금이 10, 생산품 가격이 100이라면 이 기업의 단기 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Q$ 는 산출량,  $K$ 는 자본투입량,  $L$ 은 노동투입량을 의미한다)

- <보 기>
- ㄱ. 단기의 이윤극대화 노동투입량은 10이다.
  - ㄴ. 단기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5이다.
  - ㄷ. 최대 이윤은 400이다.
  - ㄹ. 자본재 가격이 100을 넘으면 이윤이 음의 값을 가진다.

- ①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ㄴ, ㄷ, ㄹ

22. 노동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노동이 유일한 변동생산요소일 경우, 기업의 노동에 대한 수요곡선은 노동의 한계생산물수입곡선이다.
  - ㄴ. 생산물시장이 독점일 경우, 경쟁시장일 경우보다 노동고용량이 늘어난다.
  - ㄷ. 기업이 노동시장에서 수요독점력을 가질 경우, 경쟁시장일 경우보다 노동고용량이 감소하며 임금이 낮아진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23. 다음 글에 따를 때 이 경제의 2010년 화폐의 유통속도와 2019년 통화량으로 옳은 것은?

- 이 경제는 폐쇄경제이며 화폐수량설을 따른다.
- 이 경제는 단일 재화인 빵을 생산한다.
- 2010년 빵의 가격은 개당 1, 생산량은 100이며 통화량은 5이다.
- 2019년 빵의 생산량은 2010년 대비 50% 증가하였고 화폐의 유통속도는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며 빵의 가격은 변함이 없다.

- ① 10, 10  
 ② 10, 30  
 ③ 15, 15  
 ④ 20, 15  
 ⑤ 20, 30

24. 어떤 상품시장의 수요함수는  $Q^d = 1,000 - 2P$ , 공급함수는  $Q^s = -200 + 2P$ 이다. 이 상품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 ㄱ. 현재 상품시장의 생산자잉여는 40,000이다.
- ㄴ. 최고가격이 150으로 설정되는 경우, 초과수요량은 500이 된다.
- ㄷ. 최고가격이 150으로 설정되는 경우, 암시장가격은 450이 된다.
- ㄹ. 최고가격이 150으로 설정되는 경우, 사회적 후생손실은 40,000이 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5. 다음 글에 따를 때 슈타켈버그(Stackelberg) 경쟁의 결과로 옳은 것은?

- 시장에는 A, B 두 기업만 존재한다.
- 시장수요곡선 :  $Q = 30 - P$   
 (단,  $Q = Q_A + Q_B$ 이고  $Q_A$ ,  $Q_B$ 는 각각 A기업과 B기업의 생산량을 의미한다)
- 한계비용 :  $MC_A = MC_B = 0$
- B기업은 A기업의 반응곡선을 알고, A기업은 B기업의 반응곡선을 모른다.

	$Q_A$	$Q_B$
①	6	12
②	6.5	13
③	7	14
④	7.5	15
⑤	8	16